

在美科學技術者協會 活動 活발

—地域別 支部 組織 끝내고 總覽 발간—

—創立 한 畝 記念으로—

相互間的 친목도모와 祖國의 科學技術·産業經濟發展을 돕기 위해 結成한 바 있는 在美韓國科學技術者協會에서 「재미한국과학기술자 총람(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in America 1972)」을 발간했다.

이 책은 在美韓國科學技術者協會(以下 在美科協)의 첫출(1972년 12월 11일) 기념으로 初代幹事陣이 執筆·편집한 것인데, 現在 美國에 머물러 있는 會員 472人을 총망라하여 그들의 略歷 및 경력 그리고 現住所를 게재했다.

現在 420여명의 會員과 10개의 지방조직을 가지고 있는 在美科協은 한 地域의 組織이거나 한 專門分野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出發 당시부터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71년 12월 11일 창립이후 계속해서 各種行事 및 事業을 추진해오고 있다.

1972년 5월에는 初代 평의원 및 감사의 선거가 있었는데 그 결과 초대 평의원 임기는 3년 2년 1년씩 구분하여 앞으로 매년 1년 임기의 평의원 3분의 1씩을 교체하기로 하였다.

또한 1972년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워싱턴의 원저파크 호텔에서 제1차 평의원회 및役員원회를 개최, 회칙 개정안 심의, 普般細則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1972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고 次期 회장단 입후보자를 추천했으며 앞으로 해나갈 事業 등을 진지하게 토론했다. 在美科協에서 지난 一年동안 추진해온 事業은 다음과 같다.

(1) 회보 발간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매개체이며 대변지구실을 알 수 있는 會報發刊은 초창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였다는 것. 특히 國外에서 우리말로 회보를 발간한다는 것은 짐작이상으로 큰 애로를 느꼈다고 한다. 회보 편집에는 박영씨가 창간호부터 돕고 있으며 會報에 있는 모든 英語는 편집간사 自身이 타자했는데 會報는 每 2個月마다 한 호씩 나오는 것으로 現在 제5호까지 發行되었다.

(2) 재미한국과학기술자 총람 I 집 발간

재미한국과학기술자의 實態를 調査하여 책자로 발행했다.

이는 創立 당시부터 決定한 연차 사업의 하나이었다는 것. 그러나 初年度는 在美科協의 기구 정비에 바빠서 우선 회원을 중심으로 제 1집을 발간하는데 그쳤으며 편집도 초대 임원 재임시에 마치지 못하여 부득이 제2대 간사진의 협조로 발간하게 되었다.

(3) 협회기술지원 사업

現在 進行中인 사업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터마운틴스 테이트스 지부에서 제안해 온 유타대학에 한국 과학자의 리써취 펠로우십의 설치라는 것. 인터마운틴 스테이스트 지부로부터 유타대학의 요구에 의한 대충 장학금 4,000불 지원 요청을 협회가 접수, 관계 전문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중 2,000불을 지원하기로 決定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蔡東基 박사가 李泰圭교수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델라웨어 벨리 분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사업이다. 델라웨어 벨리 분회에서 보내온 국내 화학공업계통의 연구 및 그 자문을 위한 자금 보조 신청을 本會가 접수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서 연구 보조비 1,000불을 지급했다.

그리고 한국 과학원장 朴達祚박사 및 국방과학 연구소장 심문택 박사 등이 訪美, 각 지역의 지부 및 분회에서 순회간담회를 베풀어 相互 많은 의견교환을 갖도록 했으며 모국에 과학기술자 유치에 도움을 주었다. 이밖에 싸우스트 웨스턴 스테이트스 지부에서는 한국에서 파견된 유전 개발 관계진 10명을 맞아 심포지움을 가진바 있다.

이를 계기로 유전 개발관계 각 전공 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한국 기술진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타 지부에서는 충남대학에 도서를 수집하여 송부하였다.

在美科協은 現在 워싱턴에 主務室을 두고 있으며 회장에는 李基儼氏, 부회장으로는 盧玲瀟, 李林學, 李輝昭, 威仁英씨 등이 수고하고 있다. (편집부)